

낮과 밤이 빛나는 담양, 대나무축제 성료...21만 인파 '열기'

빛 콘텐츠·다양한 체험 등 관광객 69만명 방문 아간경관·지역 상생...채류형 관광축제 위상 강화

최근 죽녹원과 담빛음악당 일원에서 개최된 '제25회 담양대나무축제'에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7일 담양군에 따르면 '빛나라 빛나. 대나무!'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21만명이 다녀갔다. 여기에 담양 지역 전체에는 사물인터넷(IoT) 센서 계측 기준 69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축제는 축제장 전역을 누비는 야간경관이 주효했다. 이는 낮보다 빛나는

담양의 밤을 연출하며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오후 9시까지 개장한 죽녹원에서는 '대숲 영화관'과 소망패 달기, 대나무 악기 체험 등 다채로운 야간 콘텐츠를 선보이며 머물며 즐기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1일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거리 행진과 관광 캐릭터 선포식이 진행돼 담양의 새로운 브랜드 탄생을 알렸다.

이와 함께 대나무 뗏목 타기, 물총 만들기 등 대나무 주제 체험과 어린이날 맞이 '핑크퐁 베베놀이 뮤지컬', 전국 스피드

드론 경진대회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운영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뚜렷했다.

입장권 환급 상품권 발행과 동행축제 연계로 140여종의 판매·체험 부스가 붐볐으며, 다화용기 사용과 비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등을 통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한 축제 운영에도 집중했다.

이정국 담양군수 권한대행은 "제25회 담양 대나무축제는 낮과 밤이 모두 빛나는 야간경관과 다채로운 체험·공연 콘텐츠를 통해 채류형 관광 축제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축제였다"며 "앞으로도 담양만의 고유한 매력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인이 찾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이수주 기자 iss270@gwangnam.co.kr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죽녹원과 담빛음악당 일원에서 열린 제25회 담양대나무축제장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린 모습. 사진제공=담양군청



코레일 호남철도차량정비단과 직업계·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현장체험 활동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코레일 호남철도차량정비단

코레일 호남철도차량정비단, 현장 체험 활동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호남철도차량정비단은 6~7일 직업계·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 45명을 초청, 정비단 현장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행사는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20년 광주시교육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학생들이 철도 분야 직무를 직접 경험하고 올바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체험 프로그램은 철도공사와 정비

단 소개, 정비동 견학, 신규 입사 직원들의 취업 스토리 공유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철도의 다양한 직무를 직접 접하고, 선배 직원들의 입사 준비 과정과 회사 생활을 간접적으로 배우며 철도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후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철도 분야 직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신의 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임영진 기자

광산구, '숨은 이웃 찾기' 노숙인 3명 새 삶 지원

광주 광산구가 추진 중인 '숨은 이웃 찾기' 사업이 거리에서 생활하던 노숙인들의 자립 지원으로 이어지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다.



7일 광산구에 따르면 송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월 '숨은 이웃 찾기' 캠페인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노숙인 3명을 발굴하고 긴급 복지 지원과 자립 연계를 추진했다.

'숨은 이웃 찾기'는 광산구가 마을 현장을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송정2동 지사협은 주거지 골목과 상가 밀집 지역, 광주송정역 일대를 집중적으로 살피던 중 일정한 거처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던 노숙인들을 발견했다.

지사협은 발견된 노숙인들과 상담을 진행해 지원 의사를 확인한 뒤 송정2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업체에 긴급 지원에 나섰다.

송정2동은 우선 임시 거처를 마련해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지했으며, 민간 자원을 연계해 이불과 의류, 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임영진 기자 jh4415@

수미지인·바다채소 등 장흥 수출기업 6곳, 나눔의 물결 이어져

1100만원 상당 상품·물품 전달

장흥군에 있는 수출기업들이 자발적인 기부에 나서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장흥군에 있는 수출기업 농업회사법인 수미지인, 바다채소 등 6개 곳은 최근 총 1100만원 상당의 상품과 물품을 장흥군에 전달했다.

7일 장흥군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수미지인, 바다채소 등 6개 기업이 총 1100만원 상당의 상품과 물품을 장흥군에 전달했다.

특히 농업회사법인 미풍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부에 동참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기탁된 상품과 물품은 지역 내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돼 실질적인

생활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참여 기업들의 성장세도 주목받고 있다. 세화제이엔에이식품과 무산김 주식회사는 2025년 100만달러 이상 수출을 달성하며 수출탑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바다채소의 자른 미역 제품은 중국 시장에

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무산김 주식회사는 올해 태국 기업과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600만달러 규모 수출을 목표로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미풍 관계자는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수출성당회 성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나눔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흥=정영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진도군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

진도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국무총리 표창'

진도군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을 포함해 진도군은 3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달성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민원서비스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진도군은 이번 평가에서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체계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 구

축,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민원 행정이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통해 진도군은 장려금(인센티브)으로 특별교부세 1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 진도=서진기 기자

이돈삼 전남도 전문경력관, 5·18 현장기록서 출간

'오월, 소년의 기억을 걷다'



해석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책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독자가 '읽는 역사'에 머무르지 않고 '걷고, 느끼고, 기억

1980년 5월, 5·18 민주화운동의 현장을 따라 걷는 기록서가 출간됐다. 단순한 역사 해설을 넘어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오월을 재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도록 구성됐다. 저자는 5·18 사적지 안내해설사로 활동하며 축적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각 장소의 역사와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어냈다.

책에는 계엄군의 진압 과정, 시민들의 현혈과 주먹밥 나눔, '해방광주' 시기의 자치 경험 등 구체적인 사례가 담겼다. 사건을 나열하기보다 현장의 감각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서술 방식이 특징이다.

이돈삼씨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사라지고, 기억하면 이어진다"며 "오월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이어져야 할 가치"라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일기정양리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상보통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 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매체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은세 (음력 3월 22일)

- | | | |
|--------------------------|----------------------------|--------------------------|
| 48년생 먼저 도와줘야 하겠다 | 49년생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헛수고다 | 50년생 근심으로 인해 집안이 흔들린다 |
| 60년생 돈소문이 유익한 정보로 적용한다 | 61년생 걱정은 금물, 과감히 처리하라 | 62년생 소금 팔러나 비가 내리는 격 |
| 72년생 해결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 73년생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보람이 있다 | 74년생 전방위적 안목이 절실하다 |
| 84년생 절대적이라고 하면 오산이다 | 85년생 인정받고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 온다 | 86년생 고집을 너무 부리지 말라 |
| 96년생 쉽게 해결되니 부담감 버려도 된다 | 97년생 한 곳에 집중시켜야 한다 | 98년생 합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
| 51년생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 52년생 아예 기대하지 말라 | 53년생 병행시키려다 부작용이 생길 것 |
| 63년생 제3자로 인한 부부 갈등이 시작 | 64년생 서두르지 말라, 그 재물은 귀한 것 | 65년생 일단 맛 없는 것부터 먹어라 |
| 75년생 같이 있다 어울린 일을 당할 운 | 76년생 두 사람이 이익을 나누는 운 | 77년생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
| 87년생 뜻 한 바대로 확실하게 나아가라 | 88년생 말만 조심하면 탄탄대로 | 89년생 철저부심하게 된다 |
| 99년생 합치고 보자 | 55년생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라 | 56년생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우를 범한다 |
| 64년생 지나친 것은 소비가 될 뿐이다 | 67년생 마음이 급하더라도 매사 천천히 | 68년생 마음이 동하더라도 절제하라 |
| 66년생 협조를 얻어 목표에 진입하겠다 | 70년생 난관을 극복해야만 한다 | 71년생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를 얻는다 |
| 78년생 먼저 도움을 받아들이는 시기 | 79년생 뒷사람 이길 확률이 희박하니 피하라 | 80년생 성공을 향한 참신호가 켜진다 |
| 81년생 사회생활에 대한관계도 중요하다 | 82년생 인정은 무조건 피하도록 하라 | 92년생 인내를 갖고 기다리면 길이 밝혀진다 |
| 90년생 사회생활에 대한관계도 중요하다 | 57년생 뒤따르는 이가 보이니 조심하라 | 58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
| 69년생 배우자 외의 이성은 반드시 후회 | 69년생 배우자 외의 이성은 반드시 후회 | 71년생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를 얻는다 |
| 81년생 긴장을 풀지 말라 | 82년생 동시에 처리되니 혼동하지 않게 살피라 | 83년생 가는 곳마다 이로운 일이 기다린다 |
| 93년생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횡재수가 있다 | 94년생 시험 운이 좋으니 근심치 말라 | 95년생 용돈이나 혹은 상을 받겠다 |